

우리 모두를 위하여



김 찬 채
(본회 안양시흥지부장)

시대는 급속도로 변해 간다. 즉, 양적(量的)시대에서 질적(質的)시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양돈인의 의식구조도 시대적 변천에 따라 알맞게 변해 가야 한다.

예를들면, 수년 전만해도 콩나물이 길고 잔발이 나서도 양만 많이 주면 잘 팔렸다. 그러나 요즘은 양은 적고 비싸도 팔막하고 통통한 콩나물이 잘 팔린다. 비단 이 예뿐만은 아니다.

모든 상품이 양보다 질이 우선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같은 이치로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값이 싸도 인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면 소비자는 외면한다. 일부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치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우리 양돈인도 이 시대의 소비자 욕구를 직감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良質)의 돈육을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식생활 향상에 공헌하여야 할 때이다.

보건사회부도 축산물에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금년 12월부터 도축장 및 시중에 유통중인 축산물을 검사하여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거 폐기할 방침이다. 이 때에 당하는 자의 불이익과 불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검사대상은 항생제·설과메타진 등 합성항균제와 제라놀 등 성장촉진호르몬제 등 40여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같이 단속한다니까 무서워서 자제하기보다 국민의 식생활과 보건에 이바지 한다는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자각심이 앞서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도체등급제에 의한 가격차등 실시는 서두에서 말한바대로 소비자의 질적 만족도를 고려할 때 불량 돈육을 아무리 싸게 생산하여도 팔리지 않으며, 불량 돈육 생산자는 설 땅이 없어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돈가가 하락하여 우리들은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헤매다가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회복되지, 불과 6개월 쌓였던 빚을 조금 갚을 만하니 돈육의 수입허용조치와 마스크의 돼지고기 중금속 검출 보도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 최근에는 폭락 시세로 돌아섰다.

기회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난 7월 11일 라디오·TV·일간

지 등 모든 마스크들이 일제히 농진청의 발표를 인용, 시판중인 닭고기·돼지고기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33배나 초과 검출되었다고 한 보도는 우리들을 경악케 하며 목을 조여 죽이려 했다. 그렇치 않아도 돈육수입 허용이니 하여 양축가의 생산의욕이 위축되어 있는 이 시점에 설상가상이요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아닐 수 없다.

자고로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는 흥하고 풍요를 누렸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마침내 멸망하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식량생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비중높게 다뤄져야 한다. 가공할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 더 높은 국제적 전략 무기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하면 쌀이며, 야채며, 축산물까지 중금속·항생물질·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것 저것 다 가리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먹어온 국민이 모두 병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평균 수명이 높아만 가고 있지 않은가?

양돈인 여러분! 우리는 자절하지 말고 이러한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대오 각성하고 자성(自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번 농진청 발표에 의하면, 돼지 177두를 검사한 결과 그중 8두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8두가 문제이다. 이 8두(4.5%)가 177두 전부를 불신케 하여 시궁창에 몰아 넣었다. 나 하나만은 어떠랴, 나의 불량 돈육을 남의 양질의 돈육에 끼워 팔면 모르겠지 하는 알팍한 비양심적 양돈인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누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오로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출하전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으며, 출하전에 갓난돼지 사료와 젓먹이돼지사료를 급여하는 행동을 자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는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보고 생각해 보며 보호해 줄줄 알아야 한다.

자고로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는 흥하고 풍요를 누렸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멸망하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나 하나만은 어떠랴, 나의 불량돈육을 남의 양질돈육에 끼워 팔면 모르겠지 하는 알팍한 비양심적 양돈인은 사라져야 한다.